

## ■ 2019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문학분야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19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문학분야
- 회의일시 : [1차]2019년 5월 3일(금) 14:00~15:30 / [2차]2019년 5월 9일(목) 09:30~13:30
- 회의장소 : [1차]예술가의집 위원회의실/ [2차]예술가의집 세미나실1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의 사업목적은 보다 나은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우수한 작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취지를 중심으로 서류 심의에 들어갔다. 총 25명의 지원자 중, 아동청소년 대상 작품들도 포함되어 있고, 동화와 청소년 소설을 쓰고자 하는 작가들도 여럿 있어 참신한 작품을 기대하며 살펴보았다. 심의위원들이 공통으로 염두에 둔 것은 빈틈없는 완벽한 계획의 충실성보다는 향후 사업기간 동안 계획의 구체적 실현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하늘 아래 새로운 소재는 없다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다. 다만 작가들이 한발 더 나아가 낯설지 않은 소재를 어떻게 새로운 발견으로 확장하느냐가 중요한 소재의 발견일 수 있다. 아쉽게도 다수의 지원자들이 작품을 바라보는 시점이 바로, 여기, 지금, 이곳에 있지 않고 먼 곳에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소설의 경우 다양한 글쓰기 방법에 대한 고민이 물어났으며 소재의 참신성도 있었다. 환상, 해양, 식물 등 소재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차세대 작가들의 꾸준한 노력이 보여 향후 소설의 다양성에 대해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하지만 이 소재들이 새로운 이야기로 나아갈 수 있는가는 의문이 들었다. 소재의 참신함이 곧 새로운 이야기의 발견인 것은 아니다.

시의 경우 젊은 시인들의 다양한 시적 방법들이 참신했고 더 읽어보고 싶은 작가들의 작품도 있었다. 젊은 시인들은 타 예술 장르와의 교류를 통해 자신의 시 세계를 확장하고픈 마음이 절실해 보였다. 시라는 것이 낯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장르라는 인식이 강하게 느껴졌다. 소수자, 죽음, 공간 등 지금은 익숙한 소재들이지만 아직은 새로움이 묻어나는 이야기에 관심을 두었다.

심의위원들은 창작 소재를 자신만의 방법으로 계획하여 사업 기간 내에 발전시킬 수 있는 작가를 선발해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기로 했다. 인터뷰 대상자는 총 12명이었다. 사전에 심의위원들이 사업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이야기하고 어떤 작가를 선발해야 할지 공유했다. 서류 심의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새로운 소재의 가능성을 찾는 게 아니라 낯익은 소재를 어떻게 작가의 눈으로 바라보았느냐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작가들은 자신이 쓰고자 하는 대상과 자신의 문학관이 뚜렷했으며 사업과의 부합성, 구체적 창작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심의위원들은 사업 기간 내에 실현 가능한 계획인가, 창작계획의 충실성 및 성취도를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소설 부문의 경우 사회성으로 나아가는 시야 확대를 통해 위로보다는 상황에 대한 혼란과 억압의 이유를 들어 문제의식을 드러내기도 하였고, 식물의 특성을 인물과 연결지어 독특한 소재 확장을 열고자 하는 창작계획을 보였다. 소설 장르를 타 장르와 연결지어보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와 특히, 개인의 서사를 통해 새로운 해양문학의 발견을 추구하고자 하는 작가도 있었다.

시 부문의 경우 다양한 예술 장르와의 결합을 꿈꾸며 시 세계를 확장하려는 의지가 있었으며, 새로운 콘텐츠와 함께 언어의 조합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사람들과 호흡하며 비장소의 공간화를, 언어의 부딪침을, 슬픔을 정면돌파하는, 죽음을 신화적 상상력으로 연결시키는 다양한 시도들을 꿈꾸었다.

한편으로 심의위원들은 차세대 작가의 창작계획이 낯선 것은 새로움을 포용하는 방법이 익숙하지 않아서였나를 고민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선발했음을 밝힌다. 새로운 방법의 글 쓰기를 시도하더라도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음을 기억했으면 한다.

인터뷰 심의를 통해 선발된 8명의 작가들은 각자의 목소리로 새로운 연결을 하고 싶어했다. 계획이 구체적이며 사업 기간 내 실현가능하고 심층적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도 간절했다. 조금은 미숙하더라도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작가에게 손을 들었다.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를 통해 자신의 중심을 밀고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9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문학분야 심의위원 일동